

# 세기말 과학적 현상에 관심

연구 활성화에 따른 관련서 활발

김성원 ·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1998년은 IMF로 시작해 IMF로 막을 내린 우울한 일년이었던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 총체적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해 연구비가 현저하게 줄어든 과학계 뿐만 아니라 부도 사태를 겪었던 출판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과학서적 붐을 일으켰던 1997년도와 비교해 볼 때 과학서적 출판도 활발하지 못했다. 그동안 과학서적의 출판은 국내 저자보다 주로 번역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급격한 외환 상승으로 인한 과학서적의 로열티 증가도 출판사에 부담이 되어 과학서적 출판의 부진에 한몫 했을 것이다.

## 과학의 세계적 업적에 대한 관심 증가

잡지 《사이언스》에서 인용한 지난해 주요 과학계 뉴스는 다음과 같다. 우주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은 국제공동 연구팀의 성과, 새로운 암치료법과 예방법 개발, 선충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대한 분석을 마침으로서 게놈 분석의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 보임, 수수께끼의 소립자인 중성미자의 질량 확인 연구결과 발표, 7억년전 중분화된 초파리와 쥐가 24시간 생체리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확인, 수십만개의 새로운 화합물을 한꺼번에 합성하고 검사할 수 있는 조합화학의 비약적 발전 등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업적과 관련한 후속 연구들이 결국 우리 나라의 과학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과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바뀌게 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98년도에 수여된 과학관련 노벨상의 업적들도 일반인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99년의 과학서적들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리라 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F체제로 인하여 연구비의 수혜 건수와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연구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노 튜브 응용 가능성 발표와 함께, 아직 성공여부의 논란과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복제 양돌리와 유사하게 인간 배아복제 성공발표는 나름대로 국제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국제적인 학술회의와 세미나들을 개최해 온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와 고등과학원은 우리나라 이론물리학회에 끊임없이 국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많은 도움과 영향을 준 기관들로 꼽을 수 있다.

그밖에 외국으로부터의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 플라스틱 용기와 라면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호르몬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가

**지난해의 연장 속에서 환경문제와 함께 인간 복제문제, 상대성이론과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 노벨상과 관련된 대중서가 계속 소개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외국서적을 단순히 번역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자가 저술한 책의 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됐다. 또한 아마추어 천문인의 소행성발견은 초겨울의 유성우 관측 붐과 함께 서적·성도·망원경 판매 등 천문관련 문화 상품의 판매가 급신장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99년의 과학계를

계속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IMF체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다소나마 경제 위기가 해소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연구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신소재 개발이나 유전자조작 등의 연구와 함께 암연구의 활성화를 추진시킬 것이며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X-선이나 감마선을 이용한 천체물리학의 연구가 조금 더 활성화되리라 예측해 본다.

## 환경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

올해의 과학서적은 이처럼 지난해 사건의 연장 속에서 출판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레니엄 버그를 비롯한 세기말 현상, 환경문제와 함께 인간 복제문제, 영원한 주제인 상대성이론과 타임머신이나 시간

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노벨상과 관련된 대중을 위한 과학서적도 계속 소개되고 번역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세기말 퇴폐현상과 함께 말세론을 과학적인 근거 아래 소개하는 책의 유행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소위 노스트라다무스 증후군이라 할 1999년도에 벌어질 사건들, 예를 들어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이 거대한 십자가(Grand Cross)의 형태를 이루게 되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과학적인 검증과 함께 이뤄지리라 본다. 환경문제 또한 중요한 소재로 도입될 것이다. 지구의 멸망이 외부적인 침입에 의한 다기보다는 바로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과 괴로부터 기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윤리 및 사회성을 이슈로 한 내용들도 계속 관심을 이끌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최근의 천체물리학의 활성화와 더불어 상대론과 관련한 연구 내용들도 계속 소개될 것이다. 상대론을 알기 쉽게 소개한 다든지, 블랙홀이나 우주론에 관한 것이나 타임머신에 관련해 다양한 소재가 해마다 소개되는데 조금씩 더 발전되고 연구된 내용들이 나오리라 전망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서적을 단순히 번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국내 저자가 저술한 책 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謹賀新年〉

새해에는  
더 좋은 그림으로  
봉사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출판미술협회 회장 강우현  
운영위원장 최철민

〈謹賀新年〉

활기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尹靑光

〈謹賀新年〉

참다운 출판정보화  
실현으로 출판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새해 다복하십시오

1999년 새해 아침

(주)한국출판정보통신  
대표이사 김병준